

복식에 표현된 노출

*호원대학교 의류학과

정연자*

목 차

I. 서론

II. 일반적 고찰

III. 복식에 표현된 노출

IV. 결론

참고문헌

Abstact

I. 서론

복식은 육체의 의복(habiliments)일 뿐만 아니라 정신의 의복(vesture)이며, 시대와 사회의 생활감정 내지는 상징으로서 깊은 의미를 갖는다. 시대의 미적 기준으로 그 시대의 사상, 정서 내지는 미적 가치를 표출¹⁾하는 복식으로 우리의 일상 삶 자체를 담아내고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1세기로 향하는 지금, 시대적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 선진국들은 사회적 기능의 변화, 집단이나 사상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한, “모든 생각이 가능하다”는 이념의 개방주의를 통하여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탈공업화 시대로 들어서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²⁾ 이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어느 가시적 대상물보다 개성을 표출하는 복식에서 점점 다양하고 대범한 노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식에 표현된 노출의 특성을 살펴보고, 미적인 관점에서 노출의 올바른 개념파악을 하고 복식에 표현된 노출의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중심으로 노출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출의 일반적 고찰을 하였고 실

1) 丹澤 功, 「服飾の中心にある 美的感情」, 東京: 原流社, 1990, p.17.

2) 프랑소와 브르크하르트, 「유럽디자인의 미래」, 「산업디자인」, 1990, 21권.

증적 분석으로는 작품집과 잡지를 통해 노출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을 수집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3) Paoletti, J. B. "Content Analysis: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1982(1), pp.14-17.

4) Littrel, M. A.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of Clothing: Curr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Direction." *한국의류학회*, 1989년도 추계학술세미나, 1989, 10.

5) Delong, M. R. *The way we look,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pp. 7-13.

6)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84, p.31.

7) Laver, J. *Modesty in Dress*. Houghton Mifflin, 1969, p.97.

8) 권미정. "의상디자인의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33.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Paoletti³⁾의 내용분석법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수량적 자료를 뽑아낸 다음 그 자료를 가지고 Littrel⁴⁾이 제시한 좀 더 자연적이고 해석적인 기술적,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을 행하는 절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면서 Delong⁵⁾의 A.B.C(apparel, body, construction)의 법칙을 바탕으로 관찰, 분석, 해석, 평가의 4단계를 적용하였다.

II. 일반적 고찰

1. 노출의 의미

Laver는 인간이 의복을 입는 목적은 인체의 성적 매력을 끄는 부위로 주위를 집중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고 인간은 의복을 입음으로써 성적 관심을 자극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패션은 은폐와 노출의 숨바꼭질이기 때문에 어떤 미를 강조한 후에 다른 부위를 강조하는 것이 그 종합적 효과라고 노출을 설명했다.⁶⁾

이러한 인체노출은 각시대의 사회현상, 종교관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노출은 시대별 사회현상에 따라 그 개념의 이해가 상이하고 범위 또한 다양하다. 노출의 부위는 시대에 따라 가슴, 엉덩이, 다리가 주요대상으로 강조부위가 변화되어 왔다. 노출의 미는 완전한 나체에서보다는 인체선의 일부가 노출되고 일부가 감추어질 때 노출 부위의 미가 더욱 강조되며 감추어져 있던 부위가 노출될 때 비로소 매력을 느끼게 된다.

특히 여성의 성적 매력은 남성의 성적 매력보다 더욱 발산되는데, 인체가 가리워져 있어서 어느 일부가 노출될 경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성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유혹하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션은 의복이 노출과 정숙성 사이의 타협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로 패션의 목표는 여성 인체의 여러부분을 차례로 노출, 혹은 강조함으로써 계속되어왔다.⁷⁾

Rudi Gernreich은 "앞으로는 피부 그 자체가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매력적일 수 있다"고 하며 육체를 노출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인체를 덮는 의복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던 방식이 인체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서 인체 그 자체를 미의 소재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나체의 경향은 생활수단에서의 반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위 또는 기존 관습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시위를 의미하기도 하였다.⁸⁾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노출이 그 본래의 의미에 대한 깊은 연구나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없이 외형적 표현에 의한 즉각적이고 단순한 성분능의 표출로만 인식되어 그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왜곡되고 있다. 그러나 복식에서의 인체노출은 단순한 성분능의 표출만이 아니고 패션의 흐름속에서 표현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여성들의 인체를 노출하려는 현상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인간의

정신문명이 점차 쇠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노출 부위

의복 역사의 흐름을 보면 어느 시대이건 몸의 일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던 때가 없다. 시대에 따라 노출 부위는 다르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개념의 이해가 상이 하고 범위 또한 다양하다. 노출 부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슴

9. Glynn, P. *Skin to Sk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38.

여성의 유방은 다른 부위에 비해 현저한 여성의 형태적 특징을 지닌 입체적인 부위로써 안정, 모성애, 따뜻함을 뜻하는 심리적·감정적 표현 효과를 포함한다.⁹⁾

이집트나 크레타 여성의 노골적인 유방의 노출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으며, 또 인간성의 회복이 그 근거를 이룬 르네상스 시대와 인간의 감성을 중시한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시대의 어깨선과 가슴선을 노출시킨 데콜레테(decolletage)는 여인의 풍부한 관능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가슴부위를 노출할 때 데콜레테는 가슴의 형태, 체형, 연령에 어울리게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인체를 감추면서도 드러내 보이는 옛보기의 낭만적이고 매혹적인 에로틱함을 나타내었다. Konig는 여성복 데콜레테와 같은 표현 형식은 직접적인 자극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심미적으로 길들여진 에로티시즘으로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⁰⁾

10. Steele, V. *Fashion and Eroticism: Ideal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Jazz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44.

2) 엉덩이

엉덩이는 허리와 대조되어 풍만함과 다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크기와 팽창의 강조는 곧 성적 매력의 효과를 가져온다.¹¹⁾

11. 류기주,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 형태 연구 -고대 이집트에서 낭만주의 시대까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15.

풍만한 엉덩이는 이성에게 여체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여자의 가슴과 엉덩이가 유사하게 생겨 화가들에게 미의 표현으로서 사용되어온 부위이다. 엉덩이는 가려졌을 때도 움직임에 의해 성적 매력을 주는 부위이고 이것이 드러날 때는 매력이 한층 고조된다. 16세기 여성들은 엉덩이를 좀더 동그스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패드가 많이 든 옷을 입곤 했다. 오늘날에도 스커트 뒷자락을 부풀게 하는 허리받이나 길게 끌리는 옷자락 등은 예나 다름없이 남들의 시선을 곧장 엉덩이로 집중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풍만한 히프가 여성의 생식력을 암시하는 반면, 날씬한 엉덩이를 가진 여성은 재생산 욕구를 거부하는 인상을 풍긴다.¹²⁾ 복식사에서 엉덩이와 다리의 노출이 금기사항이었던 것은 이 부위가 가장 성적 자극을 주기 때문이었다.

12. Fischer-Mirkin, T. *Dress Code*. New York: Clarkson Potter Publishers, 1995, p.58.

3) 등

등은 다른 부위에 비하여 넓이가 광대하며 척추를 중심으로 패인 굴곡으로 인해 성적 매력을 주며, 그 부위가 적으면서 상부일 때는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그 노출 부위가 넓거나 허리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섹시함을 준다.

몸의 다른 부분을 가린 채 등을 노출시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억제된 에로티시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등 노출은 피부를 살짝 드러내면서 구체적으로 둔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매력이 있다.

등의 노출은 1960년대 중반까지 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4) 발

발 노출은 20세기초에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19세기의 긴치마는 여성의 발에 대한 문화적 강박관념을 발달시키는데 공헌하였다. 긴치마로 발을 감추는 것은 이론적으로 더 큰 성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어 발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리가 오랫동안 완전히 가려 있어서 발목이 살짝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이때는 '색정적인 다리' (erotic leg)를 억압하는 조치가 너무 엄격하고 완벽하여 예의 범절을 차리는 의복에서는 그 낱말조차 금지되었다.¹³⁾ 따라서 1900년대에는 발목 부위가 에로틱한 신체 부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섹스와 관련되지 않는 부위일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노출되면 성적인 매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부위를 드러내면 실증을 일으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부추긴다.

13) 이정옥의, 「서양복식사」 서울:형설출판사, 1989, p.349.

여성의 발은 인체를 지탱하는 작은 기관으로써 특히 복식과 연결되면서 성적 욕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플로베르는 마담-보박르에서 “수놓은 장미색 새틴 슬리퍼가 그녀의 조그만 발에 매달려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레옹은 형언할 수 없는 여성의 기묘한 매력에 도취된다.”고 서술하였다. 「감정교육」의 주인공 프레데릭에게도 역시 여인의 발은 욕망의 대상이었다. 플로베르의 인물들이 발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발에 대한 물질 숭배적인 경향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육체의 은밀한 부분이라는 점 때문이다. 발에 대한 집착은 <흠쳐보기>의 변형된 양태이다.¹⁴⁾

14) 김연권, “플로베르에 있어서의 에로스와 죽음,”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39.

5) 다리

다리가 로코코 말기에 치마 밑으로 조금씩 보이는 것이 화제였지만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복에서 거의 노출되지 않고 긴치마 속에서 연약하고 의존적이며 비활동의 상징으로 은폐되어 왔다. 그 후 현대에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짧아진 치마와 바지의 착용으로 노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여 각선미 그 자체가 미의 기준이 될 정도로 오늘날에는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위로 부각되었다.¹⁵⁾

15)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수학사, 1991, pp.283-284.

다리는 여성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노출이 금지된 부위로 긴치마 속에서 의존적이며 연약하여 비 활동의 상징으로서 은폐되어 왔다.

여성의 다리가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움직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두다리가 서있는 모습은 여성의 자립과 관계가 있어 경제적 지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유에 대한 가시적 상징인 것이다.

노출된 다리가 에로틱 포인트가 되어 에로티시즘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시기는 1960

년대이다. 이때는 미니스커트가 여성해방과 똑같은 뜻으로 환영받았는데 1965년 Mary Quant에 의해서 급격히 확산되었다. 짧은 미니스커트는 성적임을 표현할뿐만 아니라 해방감도 상징했다. Pierre Cardin도 1966년에 무릎 위 20cm의 미니스커트의 누드룩을 발표하고 속옷을 입지 않은 마네킹을 선보여 노출로 직접적인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 과거 감추어진 형태에서 은근하게 나타내던 에로티시즘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¹⁶⁾

16) Morris, D. 「바디워킹」, 이규범(역) 서울: 법양사, 1986, p.225.

6) 허리

여성은 남성보다 명확한 허리곡선을 지니고 있으며 르네상스, 바로크, 낭만주의시대를 거쳐 가는 허리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정착되었다. 가는 허리는 여성의 심약성과 우아미를 표현하는 인체부위를 인간의 감성이 중시되었던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시대에 강조되었으며, 자연스런 H라인의 허리선은 인체미를 중시한 그리이스의 키톤(chiton)이나, 1920년대 플래퍼 룩(flapper look), 샤넬의 슈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실로엣으로 이는 여성과 합리주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¹⁷⁾ 현대에 있어서 허리의 노출은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17) 남후남, "패션디자인에 표현되는 여성의 인체노출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32.

III. 복식에 표현된 노출

복식에 표현된 노출을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역사적으로 고찰한 다음 1990년대 복식에 표현된 노출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복식에 표현된 노출의 역사

의복의 역사를 보면 시대별로 인체의 노출은 항상 있어왔다. 노출 부위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개념 역시 상이하다. 1990년대 복식에 표현된 노출을 살펴보기 위해 역사적으로 나타난 노출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고대

이집트 복식에서는 다산이나 풍요를 상징하는 가슴과 배를 노출시켰다. 크레타(Crete)인들은 신체곡선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려고 입체적으로 구성해낸 것이 같은 시대에 접근해 있던 다른 나라들의 의상과 틀린 점이다. 크레타(Crete)의 남성들은 상체는 완전히 노출하고 엉덩이의 곡선을 드러내는 로인 클로스를 착용한 위에 허리에는 조이는 금속 벨트를 착용하였다. 여성들은 현대의 볼레로 형태로 된 짧고 화려하게 장식된 상의나 가슴을 드러내는 블라우스를 입고 목이 넓어지는 주름잡힌 스커트를 주로 착용하였다. 다른 사회와는 달리 개방된 지위를 누리던 크레타 여인들의 모습은 탁월한 필치의 벽화나 조상등에 생기있게 묘사되어 있다. 크레타여신상의 노출된 상체는 교묘하게 재단되어 유방을 노출하고 유방 아

래는 꼭 맞게 되어 있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닿았다. 블라우스의 목선은 대단히 낮고 밴드로 트리밍이 되어 있으며 몸판은 허리 앞에 레이스로 함께 묶여져 있다. 또한 프레스코 벽화에 나타난 젊은 여인은 가슴과 배를 노출시킨 블라우스와 종모양의 긴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 상흔이나 무신, 신체변형 등으로 미를 표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인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다. 그들의 이러한 미의식의 표현은 먼저 인체노출로 나타난다. 무용수들이 춤을 출 때나 악사가 연주할 때, 또 여자노예들은 때로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완전노출로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로인클로스는 허리 아래부분만 가리므로 상체나 팔, 다리 등은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집트는 더운 기후로 인하여 개방적인 의복형태가 발달해 신체를 거의 노출시켰다. 이러한 신체 노출은 이집트인들의 장식 욕구를 야기시켰으며 게다가 그들의 풍부한 장식감정 및 내세를 믿는 종교관념은 한층 더 장신구를 발달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맑은 공기와 밝은 태양 아래서 그리스인들은 옥외생활을 즐겼기 때문에 야외극장이나 경기장에서 나체경기의 풍습이 낡아지게 되어 올림픽경기가 시작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나체경기를 통해 육체와 정신을 단련시켰고 이로인해 인간의 육체미를 숭상하게 되었다.

그리스, 로마의 복식은 남녀 구별없이 자연적인 인체미를 살리기 위해 얇은 천으로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레이퍼리 의복형을 하였고, 바느질을 하지 않은 간단한 의복으로 보일 듯 말 듯한 육체를 통해 관능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신발의 주된 형태는 발에서부터 구두 끝까지 묶는 발목 높이의 부추형이었으며 발의 형태에 따라 만들어 좌,우로 구분이 되었다. 그리스의 부츠는 더운 기후에 적합하도록 항상 발가락 부분이 노출되도록 만들어졌다. 토가의 드레이핑 방법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약간씩 달랐으나 기본적으로 왼쪽 허리 바로 위에서 시작하여 드레이프 시켰는데 왼쪽 어깨는 항상 덮여진 반면 오른쪽 어깨는 항상 노출되었고, 끝부분은 왼쪽 팔위로 혈렁하게 걸려 있었으므로 나선의 효과를 이루었다.¹⁸⁾

18) 백영자, 유효순, 「서양복식문화」 서울:경춘사, 1998, pp.31-9.

2) 중세

고딕 시대는 12세기 중엽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나자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으려는 기풍이 싹트게 되어 과감한 노출을 하게 된다. 13세기 중엽에는 콜셋으로 허리부위를 조이고 유방을 치켜올려 여성미를 나타냈고 14세기 초부터는 목둘레선이 깊게 파여졌으며 어깨를 노출시켰다.

목 둘레를 많이 파서 목과 가슴을 노출시킨 것은 13세기까지 목을 감싸는 목수건이 사용되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중세시대에는 인체 노출의 욕구가 있었지만 중세의 엄격한 규율 때문에 인체를 드러내는 의복을 착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잠재된 욕구는 다음 세대에 표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3) 근대

이 시대는 중세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모습에 의미를 두는 시기였으나 의복은 르네상스를 필두로 전반적인 경향이 인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무시하고 과장된 복식의 형태미를 추구하였다.

바로크 의상은 대담한 데콜레타(decolletage)와 가는 허리로 상징되며 특히 소매의 변화로 팔이 노출됐다. 소매가 팔꿈치 길이로 짧아져 중세이후 노출된 적이 없었던 여성의 팔이 처음으로 노출된다. 로코코 시대에는 향락주의가 만연되었던 시기로 의복도 관능적이며 향락적이었다. 목선이 깊게 파여 가슴이 보였으며 지나친 폴셋의 압박으로 노출된 가슴의 혈관이 피부밑으로 파랗게 비쳐 보이는 것이 매력이었다.

19)Ibid, p.200.

목선을 넓게 파서 어깨를 드러내 놓고 고급의 레이스로 된 칼라 모양의 베르타를 달아 어깨가 넓어 보이게 하였고 낭만적인 여성의 미를 함께 표현하였다.¹⁹⁾

150년대로 접어들면서 여성복의 네크라인은 깊이 파지기 시작하여 어깨가 노출되게 되었는데, 이때 어깨를 덮는 여러 방법이 고안되었다. 깊은 데콜레타로 노출된 어깨는 속에 입은 슈미즈의 레이스 프릴로 덮거나 깊이 파진 네크라인에 레이스나 얇은 직물을 달아 덮기도 하였다.

4) 현대

1920년대가 되면서 로우 웨이스트와 더불어 다리에 중점을 두는 무릎길이의 짧은 스커트가 나타나 복식사상 처음으로 가슴, 허리, 힙에서 벗어나 종아리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가 되면서 스커트는 다시 길어지고 허리선이 부활되었으며 등을 노출시켜 여성의 수동적인 에로티시즘을 나타냈다.

1964년에는 획기적인 수영복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Rudi Gernreich의 토폴리스(topless) 수영복이 발표되어 처음으로 육체를 과감하게 노출하였다. 이러한 노출에 대한 욕구는 수영복만이 아니라 평상복에도 반영되어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블라우스를 창조해내기에 이르렀다.

얼마나 자유분방한 기질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따금 도발적인 옷차림을 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 때때로 연인을 흥분시키거나 연인이 될 잠재성이 있는 남자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것은 대단히 솔직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보다 은밀하게 표현하고 싶은 충동에서 비롯된다. 또한 권력과 평등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성적으로 과감한 옷차림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여성들은 남자를 유혹하거나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주장하기 위해 여성적인 특징을 이용하려 한다.

20) Fischer- Mirkin, T. Dress Code, New York:Clarkson Potter Publishers, 1995, pp.55-56.

노출이 심한 패션이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배꼽이 드러나는 스웨터나 허벅지가 그대로 노출되는 미니스커트, 가죽끈만으로 만든 수영복 등은 성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²⁰⁾

2. 1990년대 복식에 표현된 노출

1990년대 복식에 표현된 노출의 조형성을 살펴보면 형태적으로 구조적, 비구조적, 혼합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재는 부드러운 소재와 뻣뻣한 소재, 신축성있는 소재, 망사, 금속성 소재가 사용되었다. 표현기법은 다양한 노출부위를 나타내면서 완전 노출, 컷팅, 슬릿, 소재에 의한 노출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지는 에로티스즘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유희적인 이미지와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노출의 특성을 초현실주의 스타일,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 해체주의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현실주의 스타일

복식은 인간의 미의식이 반영된 산물로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내적 욕구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왔다. 인간의 성에 대한 내면적인 욕구는 외면으로 표출되어지는데 이의 한 방법으로서 복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의복을 착용하는 동기를 에로티시즘에서 찾는 학자들이 많다. Westermarck²¹⁾, Ellis²²⁾, Hurlock²³⁾ 등은 특히 성적 본능과 복식착용 동기를 연관지어 연구하였다.

Freud는 초기이론에서 성본능을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하였으나 후기이론에서는 결합을 찾는 에너지로서 삶의 충만감을 지향하는 힘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성본능은 억압되면 무의식 세계에 내재되어 꿈으로 나타나거나 심리적인 방어기제를 통해 예술작품에 승화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무의식의 창조성이 성적 상징과 이미지로서 예술에 나타난다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은 복식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리고 에로티시즘의 지각부위에 대하여, 프로이드는 여성의 유방, 다리, 머리등이 에로틱의 대상이 되며 더 나아가 인체의 부위 이외에 몸에 지니는 물건, 구두, 속옷등이 에로티시즘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인체를 장식하는 복식을 에로티시즘의 표현 대상에 포함시켰다.²⁴⁾

초현실주의자들이 에로티시즘에 심취했던 것은 Freud의 영향 때문이다.²⁵⁾ 프로이드가 인간사에 있어서 성이 중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것 자체가 그 이전의 합리주의적인 제반 가정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잠재의식 속에 견고히 뿌리박은 성은 초현실주의의 중요한 무기로 자리잡았던 것이다.²⁶⁾ 그들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변혁시키고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성적 충동을 기본 미학으로 삼았으며 인간의 근원적인 성적 욕구를 승화시켜 여러 가지 이미지적 차원으로 전개해 갔다.

Flügel은 인간의 성욕에 관한 Freud에 영향을 받아 정속성과 비정속성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의복착용의 동기는 두가지 상반된 모순성을 충족시키기 위한것으로 하나는 정속한 의복행동을 취함으로써 노출시키려는 욕망의 양면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갈망은 정속함이 목적이 아니며 정속함을 방패로 성적 충동 자체를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⁷⁾

21)Westermarck, E. A. The History of Human marriage, Macmillan, 1921.

22)Ellis, H.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Vol.4. New York: Random House, Inc., 1936.

23) Hurlock, E.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 Ronald Press, 1929.

24)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경춘사, 1998, p.236

25)임영방, 「현대 미술의 이해」,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192.

26)Myers, B. S. The History of Art, Exter Books, 1985, p.863.

27) Flügel, J. C. The Psychology of Clothes, Hogarth Press, 1990, p.192.

인간은 음란한 노출을 금기의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의복으로 자신의 인체를 노출시켜 나체가 되고자 하는 이율배반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Bataille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잃어버린 연속성에의 향수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에로티시즘을 지향한다고 한다.²⁸⁾

28) Bataille, G. [에로티시즘]. 조한경(역) 서울:민음사, 1989, p.15.

29) Martin, R. Fashion & Surrealism. New York: Rizzoli, 1987, p.68.

복식의 초현실주의는 초현실주의 전성기였던 1930년대에 시도되었으며 그 대표적 디자이너는 Elsa Schiaparelli이다.

초현실주의는 현대 패션에서 부분적인 것을 위치 변경하거나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조화, 인체의 각 부분을 강조 또는 확대시키기도 하며 과장하는 등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 부위를 장식으로 강조하거나 신체부위중 항상 가려져있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기법이 있다. 이는 감추어져 있는 신체를 표면으로 드러내어 은폐와 감춤의 역설적인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의복안의 인체를 그대로 옮겨놓았다.²⁹⁾

(그림1)은 Jean Poul Gaultier작품으로 엉덩이 부분에 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면서 등을 노출하고 있다. 의복의 착장 방법과 강조부위를 위쪽에 두면서 앞과 뒤의 위치전환도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Jean Poul Gaultier, Elsa Schiaparelli, Y. S. Laurent, Thierry Mugler, John Richmond, Karl Lagerfeld, Cristian Lacroi, Ungaro, Paco Rabanne, Givenchy등이 있다.



(그림1) Jean Paul Gaultier, 초현실의스타일 Collection,1997 S/S, P/L, p.71.

2.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원래 모더니즘 건축이라는 국제양식이 끝났음을 강조하는 건축비평에서 사용되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대두된 모든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문예전통이나 사조의 범위를 뛰어넘어 철학과 사회 이론, 시대 정신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고 모더니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개념의 추구라는 신축성 있고 포용력은 있으나 추상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의미로 기용되었다.³⁰⁾

30) 송미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청하, 1991, p.213.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적 모드를 만드는 모든 움직임의 총칭³¹⁾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순수 지향적이었던 예술장르간의 경계를 소멸하고 허구성과 현실성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면서 모든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 나타나는 복식은 기존질서가 무시되어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바뀌고 역사적인 것, 민속적인 것 등 여러 의미의 가치들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신의 신분과 언어, 그리고 비합리성을 전하고자하는 메시지를 가시화 함으로써 총동적인 혼돈의 양상을 띄고 있으며, 사실과 풍자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복식형태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유행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복식은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안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 절충주의, 다원주의적 특성 등을 공유하고 있다.

31) 정연자,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관한 연구」, 호원대학교 논문집 제 20집, 1998, p.11.

복식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과거의 복식을 응용하여 새롭게 발전,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적모드의 복고성,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여 서양복식의 인위적이며 건축적인 형에서 벗어나 동양복식의 형태미나 아프리카의 원시성에 대한 향수를 사용하여 나타난 현상의 토속성,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반-패션(anti-fashion) 및 전위적(avant-garde)형태로 표현된 상징성 및 전위성으로 나눌 수 있다.³²⁾

32)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 표현된 노출현상은 상징적이고 전위적인 표현의 복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위적 형태는 전혀 다른 패턴이나 스타일을 같이 사용하는 것과 찢거나 구멍을 뚫거나 유머러스한 형태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표현된 노출 현상은 기존의 가렸던 부분을 노출하고 노출되었던 부분을 가리는 모순적 행위도 보여진다. (그림2)는 Martine Sitbon의 작품으로 벳슬스타일을 응용하고 등 부분을 노출시켜 역사성과 전위성을 나타내는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이다.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Dolce Gabbana, Thierry Mugler, John Richmond, Karl Lagerfeld, Pirre Balmain, Chloe, Sophie Sit bon, Dorothee Bis, Martine Sitbon등이 있다.



(그림2) Martine Sitbon,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 Collection, 19972-9 A/W, P/L, p.151.

3. 해체주의 스타일

198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양식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일반적 디자인의 개념을 깨뜨리는 '해체패션'으로 그 흐름이 변화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의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해체는 의복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키기 위한 분석적 창조적 과정이 되었다.

해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특성으로 인용, 텍스트와 글쓰기, 차연, 보충, 산종, 흔적, 현존과 부재, 상호텍스트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개념들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쇄고리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위의 개념들을 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특성을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dis·de의 탈로 구분할 수 있다.³³⁾ 이러한 특성을 표현한 해체현상은 내부로부터의 해체이며 본 연구에서 살펴 보고자하는 노출은 파괴, 빈곤과 함께 나타나는 외부로부터의 해체이다. 이러한 외부적 해체는 '해체'라는 단어적 의미에 충실한 표현형태로서 여기에 해체론의 중요개념이 도입된 1990년대에는 보다 다양하고 깊이있는 해체적 시도들이 의복에 나타났다.

해체패션에서의 노출은 자극적 표현이나 과시가 아니라 노출의 그러한 개념을 깨기 위해 사용되며 속옷이나 겉옷을 위한 보정제로 여겨왔던 콜셋과 후프를 외부로 노출시켜 외의화한 의상이다. 이처럼 은밀한 영역은 외부의 세계로 나와서 공적인 공간으로 변화된다. 이는 내부의 공간(사적인 영역)과 외부의 공간(공적인 영역)은 서로를 대립구조로 나누게 했던 관념의 경계선은 없애고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고의로 속옷을 겉에 보이도록 한 가장 실질적이면서 암시적인 속옷은 약 1783년경 엘리자

33)정연자 "인프라의상에 표현된 해체에 관한 연구," 호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 제1집, 1998, p.17.

베스 비제 르부린(Elizabeth-Vigee-Lebrun)이 그린 마리앙뜨와 네뜨의 면 슈미즈인 슈미즈 아라렌느(Chemeise a la reine)는 고의적인 노출을 의도한 속옷으로서 프랑스 혁명이전에 오랫동안 만연되어 있던 자유의 표현이자 자연주의 철학이 표현된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여겨졌다.

슈미즈 아라렌느 이후 속옷은 포츨니(Fortuny)에 의해 반복되어 티 가운(tea gown)의 형태로 등장했고, 19세기 후반 여성들의 사적인 세계와 남성들의 공적인 세계 사이의 오래된 구분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실내복은 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시와 낭만의 의복인 티 가운은 내실에서 저녁 만찬용으로, 1920년대에는 마침내 공적인 장소로 이전되었다. 이후 사적인 속옷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은 공과 사에 대한 법칙을 깨뜨리겠다는 여성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Steele 은 속옷은 겉옷 아래에서 인체를 은폐시키며, 또한 침실에서는 인체를 노출시키는 의복이므로 착장과 미착장 즉 은폐인 동시에 노출인 의복이라고 했다.³⁴⁾

Jean Poul Gaultier는 브래지어 패러디를 통해 여성 인체의 노출과 분석적 표현을 보여주고 1986년 전통적 콜셋을 겉옷으로 전환시켜 콜셋 드레스(corset dress)를 만들었다. 또한 1990년 가수 마돈나의 "Like a Virgin" 콜셋³⁵⁾을 제작하였다. 이 콜셋은 속에 입기위한 이너웨어(inner wear)가 아니라 겉옷으로 착용하기 위한 것이다. 마돈나는 1980년대 초기부터 속옷을 공연의상으로 착용하였으며 속옷의 겉옷화에 선두자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해체패션은 여성들의 노출심리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신세대 사고 방식과 결합되어 커다란 유행의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 해체 패션은 전통적인 옷 입기 규범인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게 입는다는 규칙을 없애주고 있다.

(그림3)은 Vivienne Westwood작품으로 의복을 찢어서 파괴하고 빈곤해 보이는 스타일의 의복이다. 해체주의 스타일의 파괴와 빈곤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3) Vivienne Westwood, 해체주의 스타일 Collection, 1991 S/S, P/L, p.295 .

34)Martin, R & Koda, H. *Infra Apparel*.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pp.10-17, p.119.

35) 가재창, 「패션디자인 발상3」, 서울: 정은 1993, p.96.

주요 디자이너로는 Rei Kawakubo, Karl Lagerfeld, Chloe, Vivienne Westwood, Gianni Versace, Dolce e Gabbana 등이 있다.

IV. 결론

노출현상은 세기말의 불안과 혼돈이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인 인체로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 몇 년간 생태계 보호에 따른 관심이 의복에도 표현되어 에콜로지 룩(eco look)이 유행하였고 노출은 더 근원적인 자연이랄 수 있는 인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Freud는 성욕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는 '보고자하는 욕구'로서 상대의 성적 특징이 있는 독특한 기관을 보려고 하는 욕망은 남녀 모두에게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성의 의복은 '보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치장되어 왔다. 따라서 노출과 장식이 여성복식의 특징을 이루어왔다. 플로베르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노출과 은폐에 대한 감정 묘사는 상대방의 인체를 전체로서 갈망하기보다는 틈을 통해 보이는 부위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된다. 틈을 숨김과 드러남의 변증법이 작용하는 곳이며 대상을 다 드러내는 것 보다는 감추어짐으로써 신비한 성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인체를 훑어보고 싶은 심리적 현상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이다.

복식에서의 노출은 그 부위를 달리하면서 역사적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다. 1990년대 복식에 표현된 노출은 구조적, 비구조적,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첫째, 초현실주의적인 스타일로 부분적인 것을 위치변경하거나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조화, 인체의 각 부분을 강조 또는 확대시키기도 하며 과장하는 등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 부위를 장식으로 강조하거나 신체부위중 항상 가려져 있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감추어져 있는 인체를 표면으로 드러내어 은폐와 감춤의 역설적인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로 역사적인 것, 민속적인 것 등 여러 의미의 가치들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신의 신분과 언어, 그리고 비합리성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시화 함으로써 충동적인 혼돈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사실과 풍자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형상은 복식형태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유행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복식은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안에서 나타나는 시, 공간적 절충주의, 다원주의적 특성등을 공유하고 있다.

셋째, 해체주의 스타일로 해체패션에서의 노출은 자극적 표현이나 과시가 아니라 노출의 그러한 개념을 깨기 위해 사용되며 속옷이나 겹옷을 위한 보정제로 여겨왔던 콜셋과 후프를 외부로 노출시켜 외의화한 의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은밀한 영역은 외부의 세계로 나와서 공적인 공간으로 변화된다. 이는 내부의 공간(사적인 영역)과 외부의 공간(공적인 영역)은 서로를 대립구조로 나뉘게 했던 관념의 경계선은 없애고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의복을 찢거나 구멍 내어 의복을 파괴하고 빈곤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해체패션은 여성들의 노출심리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신세대 사고 방식과 결합되어 커다란 유행의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 해체 패션은 전통적인 옷 입기 규범인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게 입는다는 규칙을 없애주고 있다.

참고문헌

- 1.丹澤 功, 「服飾の中心にある美的感情」.東京:原流社,1990, p.17.
- 2.프랑소와 브르크하르트, “유럽디자인의 미래.” 「산업디자인」. 1990, 21권.
- 3.Paoletti, J. B. “Content Analysis: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1982(1), pp.14-17.
- 4.Littrel, M. A.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of Clothing: Curr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Direction.” 한국의류학회, 1989년도 추계 학술세미나, 1989, 10.
- 5.Delong, M. R. The way we look,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pp.7-13.
- 6.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84, p.31.
- 7.Laver, J. Modesty in Dress. Houghton Mifflin, 1969, p.97
- 8.권미정. “의상디자인의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33.
- 9.Glynn, P. Skin to Sk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38.
- 10.Steele, V. Fashion and Eroticism: Ideal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Jazz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44.
- 11.류기주.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 형태 연구 -고대 이집트에서 낭만주의 시대까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15.
- 12.Fischer-Mirkin, T. Dress Code. New York: Clarkson Potter Publishers, 1995, p.58.
- 13.이정옥 외. 「서양복식사」 서울:형설출판사, 1989, p.349.
- 14.김연권. “플로베르에 있어서의 에로스와 죽음.”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39.
- 15.조규화. 「복식미학」 서울:수학사, 1991, pp.283-284.
- 16.Morris, D. 「바디워칭」. 이규범(역) 서울:범양사, 1986, p.225.
- 17.남후남. “패션디자인에 표현되는 여성의 인체노출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32.
- 18.백영자·유효순. 「서양복식문화」 서울:경춘사, 1998, pp.31-9.
- 19.Ibid, p.200.
- 20.Fischer- Mirkin, T. Dress Code. New York: Clarkson Potter

- Publishers, 1995, pp.55-56.
21. Westermarck, E. A. The History of Human Marriage, Macmillan, 1921.
 22. Ellis, H.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Vol.4. New York: Random House, Inc., 1936.
 23. Hurlock, E.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 Ronald Press, 1929.
 24. 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경춘사, 1998, p.236.
 25. 임영방. 「현대 미술의 이해」.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192.
 26. Myers, B. S. The History of Art, Exter Books, 1985, p.863.
 27. Flügel, J. C. The Psychology of Clothes, Hogarth Press, 1990, p.192.
 28. Bataille, G. 「에로티즘」. 조한경(역) 서울:민음사, 1989, p.15.
 29. Martin, R. Fashion & Surrealism, New York: Rizzoli, 1987, p.68.
 30. 송미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청하, 1991, p.213.
 31. 정연자.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관한 연구」. 호원대학교 논문집 제 20집, 1998, p.11.
 32.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33. 정연자 "인프라의상에 표현된 해체에 관한 연구." 호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 제1집, 1998, p.17.
 34. Martin, R & Koda, H. Infra Apparel,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pp.10-17, p.119.
 35. 가재창. 「패션디자인 발상3」. 서울: 정은 1993, p.96.

Abstract

Exposure Expressed in Dress

Yeon-Ja, Jung*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characteristic of exposure presented in fashion, identify the correct concept of exposure from an aesthetic perspective, and grasp the contemporary meaning of exposure presented in fashion.

As a result of study,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surrealist style of fashion exhibited representations such as the relocation of the partial details, the harmonization of the natural and the artificial, the emphasis or expansion of each part of the body, and the like. It used highlighted the genital region with ornamentations or used the technique of paradoxically exposing the part of the body always covered. And it exhibited the paradoxical relationship of exposure and concealment by exposing the concealed part of the human body.

Second, the post-modern style showed the complicated phenomenon that the values of several meanings such as the historic, the folk, and the like appeared in its fashion. It shares in spatiotemporal eclecticism, pluralistic characteristics and the like found in the post-modern culture.

Third, the deconstructive style gets rid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external space and the private space by translating underwears into outer garments. It destroys clothing by tearing or perforating clothing whereby it represents the poor image. Coupled with women's psychology of exposure and the new generation's way of thinking indifferent to others' eyes, this fashion of deconstruction occupies the great current of fashion. Deconstructive fashion gets away with the rule of 'having to wear clothing to suit TPO(Time, Place and Occasion), the traditional norm of wearing clothing.